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김 용 우(수야, 아봐타 마스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당신 곁에 내가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에게는 지금 다가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좀 더 머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을 떠올리면 잔잔한 행복에 잠길 것입니다. 이젠 당신이 본향(本郷)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이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당신도 나의 작별인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하나입니다. 살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나는 당신을 생각하며 허공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당신도 내가 그리워지면 허공이 되어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번 생에서 나와 함께 해준 시간의 선물에 대해 가슴 깊은 곳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인사말을 받아 들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안녕!